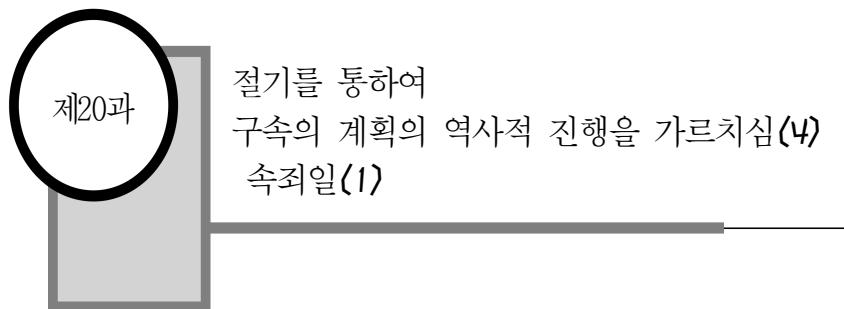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속죄일 (1)

시작하는 말: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한 절기인 속죄일에 대하여 연구하는 시간이다. 모든 절기가 구속 사업의 성질과 진행 과정과 관계가 있지만 속죄일은 특히 말세의 주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절기이다. 이것은 2,300 주야와 관련되었고, 하늘의 심판과 관련되었으며 라오디게아 교회 출현과 관계되어 있다. 하늘의 성소 봉사를 이해하는 것도 속죄일을 이해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1. 속죄일은 유대 종교력 7월 10일인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홀로 봉사하는 날이다.

[레 23:26-3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7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29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30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1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2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구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히 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 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2. 성소는 매일의 속죄 봉사로 더러워져 있으며 속죄일의 정결로 정결하게 된다.

[레 6:30]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례 4:6,7,16,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례 16:30,33,34]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3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 일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3. 대제사장은 홀로 지성소에서 봉사하되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한다.

[히 5:1-3]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니 2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3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례 16:17]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4. 대제사장의 속죄일 봉사 곧 지성소 봉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속죄 제물을 준비하되 대제사장과 그 식구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백성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여호와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다.

[례 16: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숫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례 16:5]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숫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숫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례 16:6-10]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7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 백성들은 빠짐없이 성막 앞에 모여서 모든 봉사가 끝날 때까지 자기를 살피며 기다려야 한다.

[레 23:29]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레 16:17]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3) 대제사장은 지정된 곳에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레 16: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고 봉사하는 거룩한 옷은 다른 날에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 옷이 아니다. 이것은 세마포로 만든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과 같은 봉사를 위한 옷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낯추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사단의 품성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그는 굴욕의 길에서 한층 더 밑으로 내려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낯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대제사장이 화려한 예복을 벗고 일반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봉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제물도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다.”(소망25)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속죄일에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낯추심을 상징하고 있다.

4)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권속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① 먼저 자기 자신과 그의 권속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레 16:6,11-14]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1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13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6:11,12]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② 다음 백성을 위하여 준비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뽕힌 숫염소로 백성과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린다.

[레 16:15-17]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

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 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5) 그런 다음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속한다.

[레 16:18,19]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출 30:10] 아론이 일 년 일 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 일 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6) 이렇게 하므로, 일 년 동안 날마다의 속죄 봉사를 하여 성소로 옮아진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모두 거두어 나오게 되며 그 죄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숫염소에게 안수하여 옮기고 지정된 사람에 의해 그 산 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에 놓아 보낸다. 피를 뿌린 것이 죄를 성소로 옮기는 것을 상징하였다. 죄인은 용서받았으나 아직 죄 차례는 도말되지 않았으면 바로 속죄일에 그것이 도말되었다.

[레 16:20-22]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21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7)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자기와 백성의 번제를 드린다.

[레 16:23,24]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레 16:24,25]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25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8)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은 씻어야 진으로 들어오게 되고 속죄 제물의 남은 부분은 영문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고 그 불사른 자도 몸을 씻고 진으로 돌아온다.

[레 16:26-28]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27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뚉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28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9) 이 모든 의식이 끝남으로 대제사장은 밖에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 죄는 하나님께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자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간다.

[레 16: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 레위기 16장은 전부 속죄를 위한 특별 봉사에 대한 말씀이다. 속죄일에는 레위기에 지시한 것 외에 민수기 29:7-11에 지시한 것이 더 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실 일의 표상이다.

5. 대속죄일에는 대속죄일에 하는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성소봉사를 하듯이 속죄제와 기타 제사를 끊지 않고 봉사한다.

[민29:7-11]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8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숫양 하나와 일 년 된 숫양 일곱을 다 흄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9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숫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10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11 또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나라.

-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 속죄일에 숫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속죄일의 특별한 봉사이다. 리 숫염소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이다. 레위기 16장의 지시나 민수기 29장의 지시는 속죄일에 드릴 제물들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의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일에도 일반적인 속죄제, 상번제, 소제, 전제는 계속 드려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

다음 과에서 하늘 성소봉사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할 것이다.